

[일반 논문]

조태일의 『국토』에 나타나는 공간성과 대지적 상상력

The spatiality and the earth imagination as revealed
in 『The national land』 of Jo Tae Il

이동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차 례

- | | |
|----------------------|----------------------|
| 1. 서론 | 2) 주체적 현실 인식과 극복의 공간 |
| 2. 본론 | 3) '국토' 의식과 대지적 상상력 |
| 1) 민중의 역동적 삶과 생명의 공간 | 3. 결론 |

1. 서론

조태일은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아침 선박」으로 등단한 후 1999년 9월 7일 사망할 때까지 제 1시집 『아침 선박』부터 제 8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까지 총 여덟 권의 시집과 두 권의 시선집, 그리고 평론집 등을 남겼다.

조태일의 시세계는 현실 참여와 시적 저항을 근간으로 시대 현실을 노래하였다. 등단 이후 4·19의 좌절을 풍자한 「나의 처녀막」과 비극적 역사에 대한 울분과 사랑을 노래한 「국토」를 통해 보여준 그의 현실 인식은 민중시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요구하던 1970년대의 시대 상황과 부합한다.

당대의 민중의 삶과 역사의식에 기초한 조태일은 '민중시'의 동맥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연작시를 통해 이 땅의 소중함과 민중의 삶을 흠의 이미지, 즉 '국토'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조태일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태일 시를 현실 참여적 관점에서 이해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민현기는 조태일을 투철한 현실인식의 시인으로 보고 동시에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폭력을 파헤치는 작가의 책임을 다하는 시인으로 평하면서 그의 시적 관심을 역사와 민중 그리고 통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¹⁾, 김혜니는 ‘반역과 전복의 소리-조태일’이란 글에서 그는 우리 현대시의 참여적 성격을 “정치적 의식을 객관적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의지력을 통해 드러내지 않고 주관성의 응축과 내밀한 서정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의 시는 “현실적 낭만주의가 지니는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²⁾

김재홍은 순결성의 훼손으로서의 ‘치녀막’과 반민주·반민주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투쟁의지로써의 ‘식갈’, 역사에의 사랑과 울분의 집적 공간으로서의 ‘국토’를 평하고 있다.³⁾

둘째, 조태일의 시가 보여주는 시적 표현과 구도에 주목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동순은 조태일 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조를 눈물의 변용으로 보았다. 직접 체득한 눈물이 다양한 시적 변용을 통하여 투명한 시의 세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강렬한 사회 의식과 유년시절의 추억의 교직(交織)”⁴⁾으로 후기 시편에서 심미성을 지적하고 있다.

오테호는 조태일을 ‘눈물’의 시인으로 전제하고, 『국토』와 『가거도』를 중심으로 ‘눈물’로 버린 참여적 서정의 세계로 그의 시세계를 평하고 있다.⁵⁾

한편 권영민은 리얼리즘의 정신적 지향과 그 시적 형상화의 가능성을 획득한 시인으로 조태일을 거론하면서 1960년대 시단에서 김수영, 신동엽 등이 추구했던 현실지향적인 자세를 더욱 개성 있게 자기 시의 세계로 가다듬고 있다고 평하면서 이런 시적 경향은 관념성과 추상성을 배격하고 보다 가까운 일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양분되어 있던 시의 순수·

1) 민현기, 「조태일론-현실인식의 의지적 형상화」,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연구』, 민음사, 1989, p.549.

2) 김혜니, 『한국현대시문학사연구』, 국학자료원, 2002, pp.290~296.

3) 김재홍, 「60년대의 시와 시인」,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연구』, 민음사, 1989, pp.365~392.

4) 이동순, 「눈물, 그 황홀한 범람과의 시학-조태일론」, 《창작과비평》 1996, 봄, p.241.

5) 오테호, 「『눈물』로 버린 참여적 서정의 세계」, 《시인》(제1권, 창간호), 도서출판 시인, 2003, pp.26~42.

참여 문제를 시적 진실성의 추구라는 하나의 테마로 바꾸어 시대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⁶⁾

염무웅은 그의 시를 “이 시대의 의미를 꿰뚫는 날카로운 눈과 뛰어난 시적 형상력을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면서 “외적 관심과 내적 관조가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고 좀더 근본적인 충동으로 표면화되는 시인”⁷⁾으로 평했다.

다음으로 시적 변모 과정을 제시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염무웅은 “조태일의 초기시는 「나의 처녀막」에 이르러 시의 문제로 현실적 문제가 정립되고, 「식칼론」에 와서 현실인식과 자기 각성을 통해 세련되고 심화된 민중의식을 「국토」연작으로 표출한다”라고 하면서 시적 변모 양상을 정리하기도 하였다.⁸⁾

또한 김경복은 조태일의 시적 세계를 초기시를 ‘진보에의 열망과 필력이는 기(旗)로, 『식칼론』을 중심으로 ‘힘의 미학과 민중의식, 역사의식’의 획득으로, 세 번째 시집 『국토』(1975)와 네 번째 시집 『가거도』(1983), 그리고 다섯 번째 시집 『자유가 시인더러』(1987)까지 ‘투쟁의 세계관 확립과 타오르는 불’로 독재와 불의로 타락한 현실에 대한 저항과 현실참여의 시적 주제로, 이후의 시집들을 통해 ‘생명의 포용과 상생적(相生的)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조태일의 시적 세계를 원초적 생명의식의 발아와 성숙, 그리고 수렴의 과정을 거쳐 자아와 세계와 더 큰 우주적 질서에서 만나는 곳으로 나아갔다고 정리하고 있다.⁹⁾

유성호는 조태일의 선 굵은 시적 생애가 보여준 지속성과 변이 양상을 ‘초기시편—원초적 심상과 현실 전복의 사유’, ‘중기시편—구체적 현실인식과 민중적 숨결의 복원’, ‘후기시편—자연에서 완성한 자기 긍정과 회귀’로 나누고 조태일 시세계를 저항성과 천진성의 시학으로 정리하였다.¹⁰⁾ 이를 통해 조태일

6) 고은, 김지하, 신경림, 최하림, 이성부, 정희성 등과 함께 언급함.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5, p.223.

7) 염무웅, 「자유 정신으로 이슬로 버려진 칼빛 언어」, 《창작과비평》, 1999, 겨울, p.211.

8) 염무웅, 「발문」, 조태일, 『국토』, 창작과비평사, 1975, pp.186~192.

9) 김경복, 「힘의식, 생명의 노래, 역사의 기록—조태일 시의 의미」, 『생태시와 낯의 언어』, 새미, 2003, pp.263~287.

의 시세계를 낭만적 걱정과 현실 인식의 저항성의 시에서 자연을 관조하는 천진성의 시각으로 옮겨간 여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그 나름의 성과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초기작인 『식칼론』과 『국토』를 지나치게 현실 참여적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시의 다양한 접근과 심층적 해석을 방해하고 있다. 둘째, 조태일의 시에 나타나는 ‘눈물’의 의미가 그의 시세계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재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시적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초기시와 후기시로 양분하는 등, 도식적 접근에 치우친 면이 있다. 끝으로 조태일의 성품과 관련된 일면을 통해 그의 시세계를 밝힌 부분이 많은데, 이는 조태일의 시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태일 시에 대한 연구는 외형적 양상뿐만 아니라 그 내밀한 시세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중심에 『국토』가 있다. 조태일은 ‘국토’의 시인이다. ‘국토’는 민중의 삶의 공간이요, 온전한 역사의 현장이다. 조태일 시인의 대표작이 「국토」 연작시이며, 1970년대 민중시의 성립과 그 가능성을 열며 새로운 시적 형식과 주제로 시단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국토』연작시는 현대시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조태일 시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국토』 연작시를 대상으로 ‘국토’의 공간성과 대지적 상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국토’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그 이상이다. 우리 민중의 삶의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국토’이며 ‘민중’의 이미지로 활성화 된다. 또한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까지를 포괄하는 대승적 생명의 공간이다. 한편 ‘국토’의 물리적 공간과 시인의 의식과의 소통 방식을 고찰하고 이것이 어떻게 대지적 상상력을 통해 서정적 세계로 재생되고 확장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국토’의 공간성과 대지적 상상력은 조태일 시를 통찰하고 그의 시세계를 밝히는 유효한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10) 유성호, 「저항성과 천진성의 공존과 길항」, 《시인》(제1권 창간호), 도서출판 시인, 2003, pp.43~60.

2. 본론

1) 민중의 역동적 삶과 생명의 공간

『국토서시』로 시작하는 연작시 「국토」 48편의 시가 조태일 시세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¹¹⁾. 조태일이 「국토」로 대표되는 시인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시각이다. 조태일 스스로도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썼던 시들을 묶어 세 번째 시집 『국토』를 발표하면서 1·2부에는 「국토」 연작시를, 3·4부에서는 제 1시집 『아침선박』과 제 2시집 『식칼론』에서 가려 뽑은 39편을 한데 묶음으로써 시인으로서 10년 동안 스스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는 것을 『국토』 「후기」를 통해 밝히고 있다.

『국토』 이전의 작품들은 어떻게 하면 척박한 현실을 갈아엎어 발붙이고 살 만한 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를 통해 보여주는 조태일의 시세계는 국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중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생활하는 노동의 현장을 담아낸다. 한편 『국토』 이후에 나온 시들은 이러한 국토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조태일 시의 원천은 『국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50편에 가까운 연작시 「국토」에서 우리는 조태일의 시세계를 읽을 수 있다. 어려워지는 현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문학을 통해 타협 없는 저항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때로는 재치 있는 풍자와 역설을 통해 형상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연민이나 생활에 대한 푸념을 통해 소박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민중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사의 광명을 앞당기는 싸움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는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시집 『국토』의 연작시들은 우리 시대의 정치적 암흑에 대한 강렬한 비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토」는 그의 시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조태일 『국토』에서 보여주는 시적 세계가 일상생활의 모습이나 현실의

11) 『國土』(1975)에 실린 작품이 「국토서시」 포함하여 48편이고, 「國土48」(1988)~「國土80」(1990)은 『산 속에서 꽃 속에서』에 실려 있다. 『國土』가 1975년에 나왔으니 시간적으로 많은 격차가 있을뿐더러 그 힘의 강도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모습들에 의해 풍부하게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는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²⁾ 그러나 이런 리얼리티의 부족이 『국토』의 부분적 약점이 될 수는 있어도 조태일 시세계의 전반에 대한 평가가 될 수는 없다.

내가 밟는 땅은 내 땅이 아니다.
내가 읽는 글은 내 글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니다.
내가 늙히는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다.

모기야 지난 여름
작은 음성으로 울어싸며
내 피를 맹렬히 빨아 먹던
네 입술만이 오직 내 것이다.
내 능력이다. 사랑이다. 그리움이다.

- 「모기를 생각하며 - 국토·1」 중에서(1971)

연작시 「국토」의 제 1편이 '모기'로 시작하고 있다. 모기는 보잘 것 없는 존재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런 존재와의 정서적 소통을 통해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시인의 태도는 읽을 수 있다. 또한 생존의 극한을 넘나들며 피를 빨는 모기의 치열함을 통해 시인은 '국토'의 구석구석을 답파하려는 출발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모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시적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시에서 '나'는 일체의 것을 부정하고 있다. 땅도 글도 말도 노래도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역설이 너무도 생경하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철저한 현실 부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의 '능력', '사랑', '그리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2) 염무웅, 「발문」, 『국토』, 창작과비평사, 1975, p.191.

이런 맹렬함의 이면에는 눈물로 표상되는 시인의 섬세함과 순수함이 내재되어 있다.

참말로 별일이다.
내 꿈속의 어떤 村落에서는
혈벗은 눈물과 눈물들이
소리없이 만나고 설새없이 부딪쳐서
정처 없는 눈물들을 소생시킨다.

눈물의 새끼들은 순식간에 자라서
애무도 맘놓는 정처도 없는 곳에
또 다른 눈물들을 탄생시킨다.

- 「꿈속에서 보는 눈물 - 국토·2」 중에서(1971)

꿈속에 보이는 ‘어떤 촌락에서의 혈벗은 눈물’은 이 땅의 민중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이것을 시인은 ‘정처 없는 눈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눈물들을 탄생’시키면서 전이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민중의 현실적 삶을 내면으로 체득하여 ‘꿈 속에 보는 눈물’로 형상화 된 것이다. 이런 시적 형상화는 시인의 날카로운 시대 정신과 함께 섬세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

이동순은 위 시의 예처럼 “조태일 시인이 지향하는 세계는 분명 눈물의 경지이다.”¹³⁾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온통 눈물로 치장된 식상한 연민에 국한되거나 고향에 대한 추억으로 단순히 향수에 호소하는 내용이 아님은 분명하다. 「국토」 이후의 시들은 더욱 그러하다. “시인의 눈은 더 깊어지고 시야는 넓어지며 가슴으로는 우주를 품는다.”¹⁴⁾는 평은 이를 뒷받침한다.

조태일의 ‘국토’는 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슬픔과 눈물을 통해 변용된 생

13) 이동순, 「눈물, 그 황홀한 범람과의 시학-조태일론」, 《창작과비평》, 1996, 봄.

14) 김경복, 「힘의 시, 생명의 노래, 역사의 기록-조태일 시의 의미」, 『생태시와 녀의 언어』, 새미, 2003, p.287.

명의 공간이며 흙과 함께 살아온 민중의 온전한 삶의 공간이다.

‘국토’에서 느껴지는 흙냄새는 우리 민족의 땅에 대한 강한 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땅은 또한 우리 민중의 삶의 애환과 질곡의 현장이기도 하다. 농경문화에 바탕을 둔 우리 문화는 한마디로 땅의 문화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결국 ‘국토’는 이런 우리 민족의 문화와 민중의 의식의 내면에 존재하는 당위적 가치로서 그 호소력을 갖는다. 여기에 민중의 한의 응어리가 배어있는 이 땅은 민중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온전히 지켜내야 할 절대적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야원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돌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별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텔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텔 일이다.

-「국토서시」 전문(1975)

‘식칼론’이 조태일의 다소 과격하고 날카로운 정치의식을 가장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식칼’은 날카로움이며 저항적인 의식의 총체를 표상한다면 「국토서시」는 당대를 지탱했던 민중사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 땅 위에서 흠어져 간 민초들의 숨결에 우리들의 숨결, 우리들의 삶 전체를 보태야 한다는 시인의 주장은 선명하다. 끝까지 ‘내 발로 걸어서’ 답파해 내는 ‘살아 있는’ 국토만을 진정한 국토라고 생각하는 진지성은 이 시를 지탱해 주고 있다.

조태일은 시적 대상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것에서 구하고 제제는 농촌에 사는 민중의 삶이나 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에서 취하고 있다. 자연이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물활론적인 경지로 제시되어 있음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생명이 다하는 것은 생명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숨결이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는 경지는 국토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강렬한 생명 의지가 집약된다. 곧 죽음과 재생,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적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수밖에 없는 일이다”의 반복은 강조와 점층적 효과를 지닌다. 국토에 대한 사랑의 필연적이고 당위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토에 대한 사랑은 민중에 대한 사랑이다.

버려진 땅에 돌아난 풀잎,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맹이, 이름 없이 스러져간 혼은 ‘민중’의 다른 이름이다. 버려지고 고통 받고 쓰러지는 것은 슬한 민중의 초상인 것이다. 국토에 대한 사랑은 민중의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어지는 국토 연작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축이 된다. ‘국토’ 의식은 ‘민중’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주체적 현실 인식과 극복의 공간

「국토」 연작시에 나타나는 자기 인식과 주체적 현실 인식은 한국 사회의 현

실과 분단 상황의 민중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저 파도 우는 소리 듣고파서
저 넓은 가슴팍에 안기고파서
수많은 모래들은 밤낮으로
바닷가에 귀 세우고 모여앉아
끼리끼리 몸비비며 반짝일 뿐!
헤어져 돌아올 줄 모른다.

저 대낮의 잠이 그리워서
저 가없는 푸름에 안기고파서
수많은 별들은 긴긴 밤을
달 주위에 모여 뜬눈으로 반짝일 뿐!
돌아앉아 눈감을 줄 모른다.

저 일렁이는 숲의 숨결을 듣고파서
저 깊고 푸른 고요를 일깨우고파서
수많은 바람들은
잎새에 붙어 조잘거릴 뿐!
돌아와 폭풍이 될 줄 모른다.

아직은 모래고 별이고 바람일 뿐!
헤어져 돌아올 줄 모른다.
돌아앉아 눈감을 줄 모른다.
돌아와 폭풍이 될 줄 모른다.

-「모래·별·바람 - 국토·39」 전문(1974)

이 시에 주된 소재인 모래, 별, 바람은 모두 '민중의 화신'으로 표현된 것이다.¹⁵⁾ “끼리끼리 몸비비며 반짝이는” 모래의 모습과 “달 주위에 모여 뜬눈으

로 반짝이는” 별의 모습, 그리고 “앞새에 붙어 조잘거리는” 바람의 모습을 통해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그 무엇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침묵이고 그들은 가슴 벅찬 설렘이 충만할 뿐이다. 바로 ‘민중’의 삶의 열기인 것이다. 이는 민중들의 조용한 사랑의 실천이 내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인간의 역사를 진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작의 형태는 서정시의 연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서의 반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중의 역사적인 삶의 양상과 분단된 국토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시적 형식의 이완과 대상의 확대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연작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⁶⁾

물과 물은 소리없이 만나서
흔적없이 섞인다.
차가운 대로 혹은 뜨거운 대로 섞인다.

바람과 바람도 소리없이 만나서
흔적없이 섞인다.
세찬대로 혹은 보드라운대로 섞인다.

빛과 빛도 소리없이 만나서
흔적없이 섞인다.
쏟아갈이 혹은 느릿느릿 섞인다.

한뼘줄끼리는 그렇게 만나고 섞이는데
한뼘줄의 땅을 딛고서도

15) 조태일, 「문학을 공부하는 이군에게」, 『고여있는 시와 움직이는 시』, 전예원, 1980, p.197.

16)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5, p.239.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구나
사람이면서 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구나.

- 「물·바람·빛 - 국토·11」 전문(1972)

이 작품에서는 「국토」를 민족의 주체적인 자기인식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한국사회의 현실과 민중의 삶의 모습을 반복적 구조 속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민중의 삶을 역사적 현장 속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의 분단 현실을 안타깝게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국토'의 산하를 이루는 자연물인 '물', '바람', '빛'은 서로 소리 없이 만나서 섞이고 융화하는 데 정작 그 '국토'의 사람들은 같은 민족, 한 핏줄이면서 만날 수가 없다는 분단 현실을 국토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전개하고 있다.

조태일의 '국토'는 이런 분단의 현실을 결코 무기력한 순응이나 허무적 냉소로 표현하지 않는다. 현실 극복의 의지적 모습을 보여준다. 즉,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시들이 대표작이다.

잠든 금수강산엔 잠초만 자란다.
그 잠초들을 흔들며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만 남고
빈 목소리는 빈 목소리만 남는구나
갑순아.

심심한 판에 나아가 밀어 버릴까부다
육자배기나 한 목청 뿜으면서
우리 사이에 가로 놓인
그 바람이거나 목소리거나
가령 휴전선 같은 거를
나아가 밀어 버릴까부다.

멀다가 죽으면? 송장으로 밀지.
송장이 썩어 문드러지면?
거 있지 않은가.
빛깔 강한 흰 뼈거나
검은 머리칼로,
갑순아.

- 「흰 뼈로 - 국토: 7」 전문(1972)

잡초들만 자라는 금수강산은 더 이상 금수강산이 아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자라나고 계곡과 절벽을 타고 오르는 물줄기가 웅혼(雄渾)의 기상을 뿜어내는 땅이어야 금수강산이다. 이곳에 사는 바람은 영혼의 울림으로 민족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소리여야 한다. 하지만 이시는 70년대 초, 진정한 통일에 대한 염원이 살아 숨쉬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1연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 “빈 목소리”는 통일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부족한 정치적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2연에서 시상의 전환을 이루면서 분단 현실의 극복 의지가 구체화되고, 3연에서는 점층적으로 강한 의지와 실천적 목소리로 내면화되고 연대감을 이루는 순수한 민족애로 승화되고 있다. 바로 친숙한 동무로서 ‘갑순이’로 대표되는 민족공동체의 이름으로 확장되어, ‘민중’이라는 보편성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낮에 아무리 보아도 태양은
하나니깐 하나로 보인다.
한밤에 아무리 보아도 달은
하나니깐 하나로 보인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거니와
한반도는 끝끝내 하나인데
東西에서 보기엔 둘로 보였다.

생각하니 北順아, 억울해 죽겠다
곰곰이 생각하니 南順아 억울해 죽겠다
죽어죽어 생각해도 억울하겠다. 北男아
억울하다 생각하니 더 억울하다 南男아

팽과리·징·장구·소구·벽구 들고 나와
모두 보라고 더덩실 더덩실 더덩실
억울하다 생각하니 살겠다. 춤춘다.
너만 하나냐? 우리도 하나다.
하늘더러 보라고 살빛을 보이고
너만 하나냐? 우리도 하나다.
강물더러 보라고 눈물을 합치고
너만 하나냐? 우리도 하나다.
바람더러 보라고 숨결 합치고
너만 하나냐? 우리도 하나다
물더러 보라고 찢줄 출렁이며
모두 보라고 모두 보라고
더덩실 더덩실 더덩실 춤춘다.

-「너만 하나냐 우리도 하나다 - 국토·13」 전문(1972)

이 작품은 직설적이며 격정적인 목소리로 풀어가는 한판 살풀이를 연상하듯 국토 분단의 민족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세심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의 당위성을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땅위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까지 속속들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 한바탕 신명나는 춤판을 벌이면서 서로의 숨결을 서로의 찢줄을 확인하고 하나로 합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대상황에 관심을 두는 참여시는 6·70년대 우리 시단의 큰 흐름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이 시인들로 하여금 참여시에 매달리게 했다. 국

토분단, 정치적 혼란, 산업화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참여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의 바탕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인과 독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윤리의식과 시대 양심이라는 모티브가 작용하는 참여시는 대체로 시인과 독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 우의적(寓意的) 상상력을 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3) ‘국토’ 의식과 대지적 상상력

「국토」 연작시를 통해 보여주는 조태일의 대지적 상상력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우리 한반도의 전면을 타고 흘러 민중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현장인 ‘국토’를 속속들이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이런 수평적 공간은 「푸른하늘과 붉은황토 - 국토·34」(1974)로부터 「발바닥 밑에 - 국토·4」(1971)로 이어지고, 산들과 그 산 속에 자라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작은 풀씨에 이르는 수직적 공간을 관통한다.

예를 들면, “목청을 돋구어 제 命대로 울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풀잎들이며 / 성한 팔다리로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 무수한 돌맹이들은”(「풀잎·돌맹이 - 국토·3」, 1971)을 통해 드러내는 작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통해 읽을 수 있고, “누군들 감히 입을 열랴?/ 온갖 사물들은 제가끔 터질 듯 터질듯한/ 한덩어리의 영혼으로 영글었어라.// 누군들 감히 아까와 하랴?/ 숨김없이 모두 드러내놓는 저 검허한 빛을 향하여/ 우리들 눈빛이며 살빛도 바칠 일이어라.”(「가을 - 국토·32」, 1975)에서처럼 자연 예찬적 태도를 통해 가을의 서정을 드넓은 대지에 영글어가는 영혼을 향해, 검허한 빛을 향해 마음껏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바치자는 것은 순수한 국토의 이미지를 대지적 공간으로 재확인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論介양은 내 첫사랑

論介양을 만나러 뛰어들었다.

초겨울 이른 새벽

촉석루 밑 모래밭에다
윗도리, 아랫도리, 내의 다 벗어던지고
내 첫사랑 論介양을 만나러
南江에 뛰어들었다.

論介양은 탈없이 열렬했다.
내가 입맞춘 금가락지로 두 손을 엮어
倭將을 부등켜 안은 채
싸움도 끝나지 않고 숨결도 가뻐다.

잘한다, 잘한다, 南江이 쪼개지도록 외치며
논개양의 혼속을 헤엄쳐 다니는데,
물고기란 놈이 내 발가벗은 몸을 사알짝 건드렸다.

아마 그만 나가달라는 論介양의 진갈인가보다.
내 초겨울 감기를 걱정했나보다.

첫사랑 論介양을 그렇게 만나고
뛰어나왔다.
論介양을 간신히 만나고 뛰어나왔다.

- 「論介嬢 - 국토·6」 전문(1971)

이 시는 순수한 국토의 이미지가 ‘논개’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시인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다.

개인적 체험과 추억¹⁷⁾이 이 시의 소재가 되고 시작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논개’가 개인적 차원의 평범한 사랑의 대상에 국한된 존재는 아니다.

17) 조태일, 「오늘의 나의 문학을 말한다」, 『연가』, 나남출판, 1985, p.408. 실제로 시인은 남강에 발가벗고 뛰어든 사건이 있고,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가 진주 출신이었는데 그를 떠올리며 쓴 시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승화된 존재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런 ‘논개’를 시인은 시간을 초월하여 만나고 있다. 순수한 민족혼이자 자유혼인 ‘논개’를 ‘발가벗은’ 순수한 상태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논개’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존재로 그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현재뿐만 미래에도 언제나 진행형의 상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재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 - 국토·22」(1972)는 현실 참여적인 목소리로 역사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강한 의지와 확신을 보이고 있다. ‘피’가 가지는 투쟁성과 붉은 이미지는 격동과 선동의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의 ‘피’는 파괴자나 침략자가 취하는 피가 아니다. “너를 그냥 빼앗기지 않겠다, / 전엔 녹슬고 부러진 칼끝만 보아도 / 미리미리 쏘고 싶던 너였지만 // 피야, 이젠 그냥은 내 보내지 않겠다, / 피야, 이젠 그냥은 내놓지 않겠다, / 피야, 이젠 그냥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피지배자, 힘없는 자가 흘리는 피다. 그 피를 순순히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저항의지와 민중의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민중의 소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터져 나올 수 없는 정치적 억압의 현실을 “잃어버린 목소리를 /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 잃어버린 목소리를 / 어디 가면 되찾을 수 있을까, // 바람들도 만나면 문풍지 울리고 / 갈대들도 만나면 몸을 비벼 서걱거리고 / 돌맹이들도 부딪치면 소리를 지르는데 / 참말로 이상한 일이다. / 우리들은 늘 만나도 소리를 못내니 / 참말로 이상한 일이다. //”(『목소리 - 국토·23』, 1.2연, 1972)라며 안타깝게 노래하고 있다. 불평이나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정치적 폭력만이 난무하는 시대 상황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현실이 냉혹하다 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토를 온전히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얼어붙은 땅덩어리를
우리들의 피곤한 발바닥으로나마
포개지 않으려느냐.

얼어붙은 하늘을
우리들의 죄많은 손바닥으로나마
어루만지지 않으려느냐.

얼어붙은 목소리를
우리들의 지친 아우성으로나마
풀어보지 않으려느냐.

땅덩어리는 끝끝내 우리들의 것
하늘은 끝끝내 우리들의 것
목소리는 끝끝내 우리들의 것

발바닥 포개기 그리 죄스럽고
손바닥 어루만지기 그리 민망스럽고
목칠 뽑기 그리 고달픈가.

- 「겨울 - 국토 · 46」 전문(1975)

한겨울 꿈꿨던 얼어붙은 우리의 땅과 하늘을 조태일은 “우리들의 피곤한 발바닥으로나마 / 포개지 않으려느냐”며 “우리들의 죄많은 손바닥으로나마 / 어루만지지 않으려느냐”며 ‘국토’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껴안고 그 땅 위에 당당히 서서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태인 국토를 보듬자고 한다. 그곳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풀어보자고 한다. 조태일 시인이 「국토」 연작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국토서시」에서 외치고 있는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음이 국토 대장정의 출발점이었다면, 그 기나긴 여정이 ‘국토’의 구석구석, 사소한 것, 작고 소외된 것에까지 미치고, ‘국토’의 분단 현실 앞에 안타까워하며, 통일의 염원을 불태우다가 그 불길이 전 국토를 돌고 돌았건만 아직도 겨울인 ‘국토’의 현실 앞에 선 시인은 언젠가는 봄이 오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국토를 온몸으로 노래하고 있다. ‘국토’를 지극한 애정으로 어루만지는 시인

의 국토의식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3. 결론

조태일은 ‘국토’의 시인이다. 「국토서시」로 시작하는 연작시 「국토」 48편이 그의 시세계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국토」 연작시를 통해 이 땅의 역사의 현장을 답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민중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는 역사의 현장이며 민중의 역동적 삶의 공간이다. 때로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민중의 아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국토」는 당대 민중의 목소리로 작고 낮고 소외된 것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조태일은 초기시는 『식칼론』을 통해 시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저항 의지와 시대정신을 노래하는 현실 참여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런 성격이 『국토』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즉 ‘국토’가 가지는 공간성이 민족적, 민중적 의미와 결합하면서 ‘국토’의 시적 생명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는 조태일 시의 공간적 외연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삶의 내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국토’의 이미지는 소외된 것, 작고 여린 것에게까지 미치는 시인의 눈길을 통해 역동적 공간으로 형상화 되어 전 국토를 관통하는 대지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현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연작시 「국토」는 민중의 삶이 ‘국토’라는 공간을 통해 인식되고 그 안에서 시대적 고뇌와 민중의 현실이 분단과 통일의 문제로 확장되고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조태일은 연작시 「국토」를 통해 시적 공간을 심화·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철한 현실 인식의 토대 위에 역사의 증인이며 민중적 삶의 공간인 국토의 이미지를 통해 주체적 현실 인식과 그 극복의 가능성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강렬한 언어로 독재에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목소리로 민중의 삶을 보듬으며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기약하며 새로운 희망은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삶의

공간인 ‘국토’가 있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조태일 시에 있어서 ‘국토’는 민중의 삶의 모태이자, 삶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적 공간이다.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공간이 바로 ‘국토’이며, 시인 조태일은 연작시 「국토」를 통해서 흙과 함께 한 이 땅의 민중의 소망과 한을 신명나게 표현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국토」 연작시는 민중의 현실적 삶의 공간을 직시하고 분단의 문제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민족적 과제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는 데서 그 시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분단과 통일의 문제가 ‘국토’의 식을 통해 민중의 숨결 속에서 메아리치고, 대지적 상상력으로 형상화된 의지와 희망의 시어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조태일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태일은 1969년 시 전문지 『시인』지를 창간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당시 독재의 탄압에 맞섰으며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등 한국 민중시를 이끌어 갈 시인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태일은 『시인』지를 통해 척박한 땅에 민중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문인들이 교류하고 연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국 현대시사에 큰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조태일 시세계는 거시적(巨視的) 공간과 미시적(微視的) 공간의 교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조태일은 거시적 세계관을 통해 그의 시적 대상을 ‘국토’의 광활한 대지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한반도 전체를 그 세력권으로 하여 거침없이 시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시적 세계관을 통해 그의 시는 주위의 세심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며 애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미시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조태일이 보여주는 전방위적인 시세계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조태일, 제1시집 『아침 船舶』, 선명문화사, 1965.
_____, 제2시집 『식칼論』, 시인사, 1970.
_____, 제3시집 『국토』, 창작과비평사, 1975.
_____, 제4시집 『가거도』, 창작과비평사, 1983.
_____, 제5시집 『자유가 시인더러』, 창작과비평사, 1987.
_____, 제6시집 『산속에서 꽃속에서』, 창작과비평사, 1991.
_____, 제7시집 『꽃꽃은 꺾이지 않는다』, 창작과비평사, 1995.
_____, 제8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창작과비평사, 1999.
_____, 『고여있는 詩와 움직이는 詩』(시론집), 전예원, 1981.
_____, 『아아 내나라』(시선집), 시인사, 1982.
_____, 『戀歌』(시선집), 나남출판, 1985.
_____, 『다시 山河에게』(시선집), 미래사, 1991.
_____, 『시창작을 위한 시론』(시론집), 나남출판, 1994.
_____, 『시인은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한다』(산문집), 나남출판, 1996.
_____, 『알기쉬운 시창작 강의』, 나남출판, 1999.

저서·논문

- 김태준, 「근대시 전개의 흐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89.
구모룡, 「생명의지와 행위의 온유-조태일론」,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구중서, 『자연과 리얼리즘』, 태학사, 1993.
김경복, 「힘의 시, 생명의 노래, 역사의 기록-조태일 시의 의미」, 『생태시와 녀의 언어』, 새미, 2003.
김영무, 「핵심 꺾안기와 꿈 뒤집어 꾸기」, 『시인의 언어와 삶의 언어』, 창작과비평사, 1990.
권영민,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2.

- 김우창, 「참여시와 현실적 낭만주의」, 『시인의 보석』, 민음사, 1993.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87.
- 김재홍, 「60년대의 시와 시인」, 『한국현대시연구』(김용직 외), 민음사, 1989.
- 김현식, 「조태일 시 연구」, 경희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2.
- 김혜니, 『한국현대시문학사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민경현, 「조태일 시 연구」, 전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2.
- 민현기, 「조태일론」, 『한국현대시연구』(김용직 외), 민음사, 1989.
- 방인석, 「조태일 시 연구」, 경희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2.
- 신경림, 「우리 시에 비친 4월혁명」, 『4월혁명 기념 시선집』, 학민사, 1983.
- _____,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2』, 우리교육, 2003.
- _____, 『나는 노래가 되었다』(조태일시선집), 창비, 2004.
- 맹문재, 『한국 민중시 문학사』, 박이정, 2001.
- 염무웅, 「자유정신으로 이슬로 버려진 칼빛언어」, 《창작과비평》, 1999, 겨울.
- 오태호, 「'눈물'로 버린 참여적 서정의 세계」, 《시인》, 2003
- 유성호, 「저항성과 천진성의 공존과 길항-조태일론」, 《시인》, 2003.
- 이동순, 「눈물 그 황홀한 범람의 시학-조태일론」, 《창작과 비평》, 1996, 봄.
- _____, 「조태일론」, 『국어국문학연구』(제24집),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1996.
- 이은봉, 「조태일 시의 의식 지향」,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0.
- 이주열, 「조태일의 '국토'에 나타난 이미지 양상 연구」, 중앙대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12.
- 정효구, 「시인과자유」, 《현대문학》, 1987.4.
- 최동호, 「80년대 시와 문학적 지평」, 『불확정시대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7.
- 최하림, 「꿈틀거림의 세계」, 《심상》, 1983.7.
- 한국현대시학회, 「민중시의 현실인식」, 『20세기한국시의 사적조명』, 태학사, 2003.